



###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 16금광명경과 힌두교

4세기경 성립된 <금광명회승왕경>은 <법화경>, <인왕반야경>과 함께 호국삼부경 가운데 하나다. 5세기 초반부터 8세기 초반까지 다섯 번 거듭 한역된 <금광명회승왕경>은 한중일 삼국불교의 신앙, 사상, 문화사의 측면에서 큰 대중적 수요를 갖고 있었다. 신앙의 측면에서도 <금광명회승왕경>과 <금광명도량> 등의 불교의례가 봉행되었으며, 한국불교의 가람조직과 불교의례, 불교미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경은 대승경전인만큼 반야계의 공관사상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으며 그 위에 자기의 신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사신(捨身)의 보살도, 참회의 사상, 자기를 멸각한 바른 정지는 불타와 제천(諸天)의 가호를 받는다는 왕법정론(王法正論), 나라를 호지하는 제천신(諸天神), 즉 변재천·사천왕·견뢰지신·사방사불의 외호와 활약이 중형무진하게 널리 선포하고 있다. 특히 이 경전은 703년 의정 삼장에 의해 한역된 다음해인 704년(신라 성덕왕 2년) 3월, 사신 김사양이 당에

분량으로 수록된 변재천녀의 계승이 바로 힌두교의 대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하바라타>의 부록으로서 6세기경에 완성된 <하리방사>를 한역(漢譯)하여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불교학자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신수대장경의 해당지명의 각주는 '이 쪽은 원리(하리방사)에 나온 것'이라는 주석을 첨부하고 있기도 하다. <하리방사>는 원래 힌두교의 영웅적 존재인 크리슈나의 자기희생을 찬탄하는 범어문학의 고전이다. 그래서 <하리방사>라는 명칭 자체가 '크리슈나의 계보'를 의미한다.

'바라문교와 힌두이즘의 부흥기'라고 불리우는 굽타조(320~480) 기간에 불교는 점차 힌두이즘에 압도당하기 시작하여 힌두의 제신(諸神)과 인간의 토착신앙을 불교의 체계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인도에서는 찬드라 굽타왕이 320년 즉위하여 굽타왕조를 세웠다. 다음 대에는 삼드라 굽타(325~375)왕이 남인도를 정복하고 동북인도를 통일하여 강대한 집권국가를 완성한다. 이 왕조 시대는 힌두 문화의 부흥기였다. 힌두교를 국교로 정하고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계급차별이 강화된 사회 질서는 바라문법전의 편성에 의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불교의례와 힌두의 교섭이 바로 이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불교의 수 많은 신격들이 힌두에서 전입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힌두족이 불교적 요소를 수용한 예도 있다. 그 최대의 사례는 붓다를 비슈누의 화신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비슈누신의 권화사상(權化思想)에서는 역사상, 신화상의 영웅과 성자를 자파에 받아들여 확대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 그 맹아는 오래전부터 보이지만 붓다가 비슈누신의 화신으로서 문헌에 처음 기록된 것은 A.D 4~5세기에 성립된 비슈누 푸라나이다. 힌두교도들은 비슈누 푸라나에서 연중행사로 설회된 붓다공양을 행하고 있다. 이것은 불교가 힌두사회에 위치하는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교화, 불교미술사학 및 불교도상학에 대한 인목을 갖기 위해서는 한 번쯤 인도에 가서 힌두이즘의 다양한 배경과 기원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경학회 회주

# 불상을 생명체로 전환시키는 의식

## 참물자의 길 복장의식

문화재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복장유물을 출토 모 씨가 검거됐다", "복장기가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등의 복장(假裝)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하지만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이 아니라면 복장의 뜻이 무엇인지, 복장의 의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특히 복장의식은 몇몇 스님과 시주자 등이 점안식 이전에 봉행하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복장은 불상을 조성하면서 불상의 배 속에 넣는 사리나 불경 등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보살이나 나한상 등 여러 존상 내부에 봉안되는 여러 가지 불교적 상징물을 일컫는다. 그리고 복장의식은 불도가 조성한 불상을 생명체로 전환시키는 의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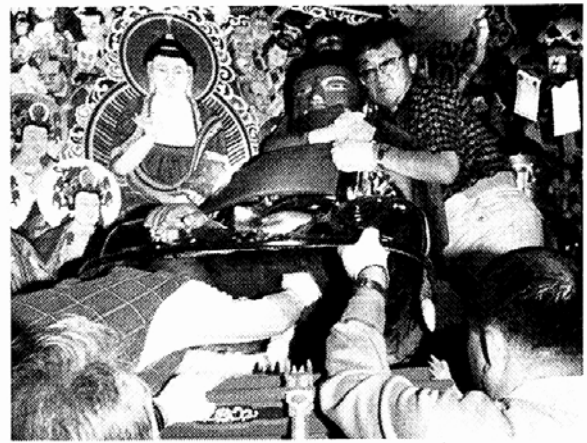
복장은 사리와 경전 외에도 사리함, 만다라, 오곡, 오색실, 오복 등이 들어갈 때, 이를 넣는 통을 복

장통이라 한다. 복장통은 큰 것 1개에 작은 것 5개가 있다. 작은 복장통은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 다섯 방위를 뜻하며 각 방위로 청(靑), 적(赤), 백(白), 흑(黑), 황색(中央)의 표시가 붙어있다. 이들 색이 곧 방위를 뜻하는 것이다. 이 복장통은 보통 처음 불상을 조성할 때 복장을 넣지만 요즘에는 개금 때에도 한다.

복장의식의 시작은 부처님을 모실 집에서 마련한 오곡밥 세 그릇, 나물반찬 세 그릇, 감로수 세 그릇, 과일 세 접시, 떡 세 접시를 일주문 앞과 마당, 그리고 부처님 모실 법당 앞에 차려놓고 공양을 올린다. 이는 성스러운 부처님을 모시는 시간에 도량 수호신장과 일체 중생에게 그 공력을 베푼다는 의미다.

복장의식은 보통 큰 탁자를 중심으로 다섯명의 스님이 둘러앉아 진행한다. 주관하는 스님을 따라 염불을 하며 스님이 '오묘'하며, 금, 은, 진주, 유리, 호박을 나눠주면

각 방위로 앉은 스님들은 "흠"하며 물품을 받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복장통에 물품을 하나씩 넣는다. 이 때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데, 복장통에 65가지나 되는 상징물을 넣기 때문이다. 복장통을 작은 복장통에 넣는 사이에는 <신



복장통을 불상의 아랫부분을 통해 뱃속으로 넣고있는 모습

득는다. 이 복장통을 불상의 아랫부분을 통해 뱃속으로 넣는데 이때 발원문, 불상 조성기, 시주자 명단 등을 함께 넣는다. 주력을 하는 중들이 외우고 스님들은 복장통에 따라 정해진 주력을 한다. 이 같은 순서로 작은 복장통이 가득 채워지면 큰 복장통에 방위를 맞춰 넣는다. 다 들어가면 그 위에 진언을 쓴 종이를 덮고 부동진언을 외우며 큰 복장통을 3색천으로 싸 오색실로

적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발원문의 내용 가운데는 불상이 봉안된 절의 이름과 함께 스님 법명 그리고 관계 지명이 나와 있어 불상의 조성연대를 밝히는 단서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복장유물은 당시 불교신앙의 경향, 사경 미술, 불상조성의 유래, 만든 사람, 발원자들의 신분 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김종근 기자

### 밀교적 修法 기술 힌두적 기원 농후

서 <금광명회승왕경>을 갖고 귀국하여 왕에게 헌상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 경전과 한국불교의 오랜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한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금광명회승왕경>이 불교와 힌두교의 사상적 교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전에 등장하는 제석천·염마천·비사문천·위타천·김상천·변재천 등 수많은 신격(神格)들과 중간부에 해당하는 '사천왕호국품' 이후부터는 밀교적 수법(修法)이 기술되고 있다. 이 밀교적 수법에서는 힌두적 기원이 농후하게 드러난다. 즉 본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다리니의 지주법(持呪法), 결계(結界), 소환(喚香), 향수단장법식(香水壇場法式), 세욕(洗浴)과 같은 정화(淨化)의례와 소풍을 태우는 구마(驅魔)는 멀리 베다에, 가깝게는 힌두교의 푸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특히 32종의 향약법(香藥法)은 불교의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향료와 종교의 관계를 보여준다.

불교와 힌두의 교섭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는 특징은 권7에 상당한



"생각을 잊는 것이나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나 모두 잘못이니, 비유하면 칼을 휘둘러 공중에 던져서 손이 닿고 닿지 않음을 상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옛날 엄양 존자가 조즈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즈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려놓아라." 엄양이 말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는데, 무엇을 내려놓으십니까?" 조즈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겠거든 들고 있거라." 엄양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또 온갖 지원 스님이 온갖 석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학인이 어찌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석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노승도 역시 어찌할 수가 없다." 지원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학인은 배우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지만, 스님은 대선지식이면서 무엇 때문에 어찌

### '서장' 통한 선 공부 ④

루추밀에 대한 답서(2)

## 힘들여 머물지 말아야 한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석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어찌할 수 있다면, 곧 그때의 이 어찌하지 못함을 집어 내버릴 것이다." 지원 스님이 말 끝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두 스님이 깨달은 곳이 바로 당신이 해매는 곳이며, 당신이 의심하는 곳이 바로 두 스님이 의심한 곳입니다. 법은 분별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또 분별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모든 분별법(分別法)이 소멸하면 바로 법에 생멸이 없게 됩니다."

선공부에서 가장 결정적 고비는 공(空)의 체험이다. 색(色)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며, 온갖 모양이 곧 모양 아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며, 동시에 선 체험의 본질이기도 하다. 공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확인되는 실재이다. 공의 체험은 곧 이상(俄相)과 법

상(法相)을 비롯한 온갖 경계로부터의 자유이며 자재한 해탈이다.

공은 어떻게 체험되는가? 본래 마음은 공이다. 다만 의식(意識)의 모양에 가로막혀서 본래가 공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의식의 모양에 유혹되고 속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공인 그대로의 마음이다. 의식의 모양에 유혹되고 속으면 무언가를 의도(意圖)하여 하려고 한다. 즉 헤아리고 분별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은 모두 의식에 유혹되어 속은 것이다.

그러므로 공인 그대로의 마음을 알려면 의식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의식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의도적으로 생각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즉 헤아리고 분별함에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생각을 잊는 것이나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나 모두 잘못'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조주가 말한 '내려 놓아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석두가 말한 '노승도 역시 어찌할 수가 없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모든 분별법이 소멸하면 바로 법에 생멸이 없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망상을 쉬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중도(中道)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혜능이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을 때에 당신의 본래면목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은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본래면목이라고 하여 무엇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면목이 바로 공이다. 공은 그 무엇이 아니므로 어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찌하려고 할 때 바로 공을 놓쳐 버린다. 그러면 그

대로 놓아 두어야 하는가? 그대로 놓아 둔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찌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로써 표현하기가 미묘하지만, 무엇보다도 힘을 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어찌하든 그대로 두는 모두 힘을 들여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말긴다'는 말도 하고 '구경꾼이 된다'라고도 하지 만 이런 말들도 잘 알아들어야 한다. 힘을 들이지 않으려면 분별하지 말아야 하고 분별하지 않으려면 어디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은 의식을 어찌하지 않는 것이니 힘이 들지 않지만, 머물러 있는 버릇이 굳어져 있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못 견디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http://www.mindfree.net/>

알림 김태완 선생이 '서장', '원오심요', '전심법요', '금강경' 등을 가지고 겨울 특별 법회를 1.2월 동안 부산에서 개최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는 011-9550-1459/김태완, 011-9520-0064이정화.

불교TV기성성들이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3족)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btn